

열왕기하 15. 남유다의 두 왕과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 (왕하 15 장 1-38)

들어가기

본 장은 남유다의 두 왕 곧 ‘아사랴’(웃시야)와 ‘요담’ 왕의 이야기와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사랴’(웃시야) 왕이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들이 바뀌며 나라는 크게 흔들렸고, 아람과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영토들이 빼앗기며 나라는 멸망으로 치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아사랴(웃시야)’와 ‘요담’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를 보내면서 새롭게 정비되고 세워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유다 왕 ‘아사랴(웃시야)’의 통치 (1-7 절)

- 1) ‘아사랴(웃시야)’는 16 세에 남유다 제 10 대 왕이 되어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1-2 절)
 - 참고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고, ‘웃시야’는 ‘나의 힘은 여호와’란 뜻!
 - 아버지는 유다 제 9 대 왕인 ‘아마샤’였고,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였음!
 - 당시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27년간 다스리고 있었음.

- 2) ‘아사랴’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3-4 절)
 - ①.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
 -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
 - 참고로 저자는 14 장에서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했으나, 그는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말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했음!
 - 그러나 ‘아사랴’의 경우는 굳이 ‘다윗’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곧 ‘아사랴’는 아버지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음!
 - ②. 그러나 ‘아사랴’도 역대 왕들처럼 유다에 퍼져있던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치했음!

- 3) 특별히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심으로, 그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5 절)
 - ‘아사랴’ 왕이 격리되어 사는 동안 모든 국정은 왕자 ‘요담’이 담당하게 되었음!
 - ‘아사랴’ 왕이 문둥병에 걸린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음.
 - 그러나 추측해 보면, ‘요담’이 왕이 된 나이는 25 세였고, 그는 16년간 통치함! (32 절)
 - 그런데 30 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반역한 해는 ‘요담’ 20년이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보면, ‘요담’은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기 최소 4년 전부터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듯!
 -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자가 ‘아사랴’ 왕의 통치와 관련해서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만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큰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

- 그럼 왜 하나님은 ‘아사랴’ 왕을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 그 이유는 역대하 26 장 16절이하에서 잘 설명되어 있음!

- ①. ‘아사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옳고 정직하게 행하였음! (대하 26: 4-8)
 - 참고로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후기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아님.
 - 아무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져나가게 하심!
- ②. 그러나 유다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함!(대하 26:16)
- ③.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함부로 대하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침해하였음!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는 제사장들을 왕의 권력과 권위로 제압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림!! (대하 26:17-19)
 - 이때 하나님은 즉시 ‘아사랴’의 이마부터 운동병이 발병되게 하셨고, 이것을 목격한 제사장들은 그를 성전에서 즉시 쫓아내고, 별궁에 격리시키도록 명령함!
 - 이날부터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된 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함!
- ④. 특별히 ‘아사랴’가 죽었을 때, 그는 역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왕들의 묘실 주변에 따로 장사되는 불명예를 당하게 됨! (대하 26:23)
 - 참고: 그가 죽었을 때, 혹 죽은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름! (사 6 장)

- 그럼 이 같은 ‘아사랴(웃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2.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들에 대한 이야기 (8-31 절)

1) 북이스라엘의 14 대 왕 ‘스가랴’ (8-12 절)

- ①. ‘여로보암(2)의 아들 ‘스가랴’는 사마리아에서 6 개월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림!
- ②. 그는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함!
- ③. 6 개월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됨!
 - 특히 10 절 주목하면, ‘살룸’은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쳐죽였다’라고 기록됨!
 - 이것은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스가랴’를 범죄자로 판결한 후 돌로 쳐 죽였음을 의미!!
 -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
 - 열왕기하 10 장 30 절,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 참고, 예후의 자손 4 대 =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2)’-> ‘스가랴’

2) 북이스라엘의 15 대 왕 ‘살룸’ (13-15 절)

- ①. 14 대 왕 ‘스가랴’를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한 달간 북이스라엘을 통치!
 - 참고로 ‘살룸’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를 이루다, 배상하다, 갚다’ 라는 뜻.
- ②. 왕이 된지 한달 만에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올라온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맘!

- 참고로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거처로 삼고. 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수도로 사용하였던 의미 깊은 성이었음!

- ③. 특별히 ‘므나헴’은 사마리아로 진격하는 동안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답사’ 성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함!!
 - ex: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함!!
- 아무튼 ‘므나헴’에 의해 죽임을 당한 15 대 왕 ‘살룸’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19 명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재위기간을 보낸 왕이 되었음!
 - 가장 짧은 기간을 보낸 왕은 5 대 왕인 ‘시므리’ -> 7 일간 왕위에 있었음. (왕상 16:15)

3) 북이스라엘의 제 16 대 왕 ‘므나헴’ (17-22 절)

- ①. 15 대 왕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10 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함!
 - 참고로 ‘므나헴’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
- ②.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음!**
- ③. 통치 초기 앗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치려 하자, 은 1000 달란트를 받치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함!!
 - 그런데 이때 앗수르 왕에게 받친 은은 북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한 것!!
 - 일인당 은 50 세겔씩 받치게 함!
- 참고로 선지자 ‘호세아’는 이 같은 ‘므나헴’의 정책을 크게 비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못하고 뇌물을 바치며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 곧 망할 것이라고 예언함! (호세아 5 장, 7 장, 10 장)
- ④. ‘므나헴’이 죽자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의 뒤를 이어 제 17 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됨.

4) 북이스라엘의 제 17 대 왕 ‘브가히야’ (23-26 절)

- ①. ‘므나헴’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 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함!
- ②.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
- ③. 왕이 된지 2 년만에 자신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당함!
 - 특별히 ‘브가히야’가 살해 된 곳은 다름아닌 자신을 호위하는 왕궁 호위소였음!!
 - 이때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 명과 뜻을 모아 ‘브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됨!

5) 북이스라엘의 제 18 대 왕 ‘베가’ (27-31 절)

- ①. ‘브가히야’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베가’는 20 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함!
- ②.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음!**
- ③. 그의 통치기간 동안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의 6 개 중요 성들을 빼앗았고,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감!
- ④. 왕이 된지 20 년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됨!

➤ 참고로 이상의 북이스라엘의 5 대 왕들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4 장 1-3 절에서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함!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6) 이상의 북이스라엘의 5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

3. 유다 왕 ‘요담’의 통치 (32-38 절)

1) ‘요담’은 25 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제 11 대 왕이 되어 16 년간 통치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아사랴(웃시야)였고,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음.

2) ‘요담’은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요담’은 나뭇 백성들의 관심을 산당에서 성전으로 돌리기 위해 여호와와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는 일에 힘썼음!!
- 참고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옳게 행동하고자 노력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고치고자 애썼다’ 라고 평가함!

3) 그런데 37 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담’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게 하셨다고 기록됨!!

-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기록함! (사 7:2)

4) 그럼 왜 하나님은 ‘요담’에게 이런 위기를 경험케 하셨을까?

-
-

5) ‘요담’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아하스’가 제 12 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4.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